

낙동강전선에서 패배 이후 북한 인민군의 재편과 구조 변화

金光洙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교수)

1. 머리 말
2.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 붕괴
3. 중국군 참전 초기 북한군의 재편과 연합작전
4. 중국군의 제3차 공세 이래 중·조 연합작전
5. 북한군의 재편성과 재무장
6. 북한군 재교육과 소련고문단의 역할
7. 맺 음 말

1. 머리 말

1990년대에 이루어진 러시아·중국의 한국전쟁 관련 문서의 제한적 공개에 힘입어 전쟁의 결정과 수행상의 중요 문제를 둘러싼 소련-중국-북한의 최고위 지도층의 관계에 관해서는 상당한 연구들이 축적되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의 북한 인민군의 구조 변화, 전략 결정, 전시 동원, 전쟁 경험 등 굵직한 주제들은 연구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에 박명림은 전쟁 첫해의 북한지도부의 행적과 전쟁 초기 남한 점령 정책의 실상을 세밀히 추적한 중요한 책을 냈으나, 그의 책은 북한 인민군 작전지도에 관한 한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²⁾ 북한은 전쟁 수행의 전 과정을 다룬 공간 전쟁사들을 여러 차례 발간해 왔지만³⁾ 그 저작들은 내용 서술에서 김일성 우상화와 정치적·선전적 목적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연구자들이 역사적 실상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⁴⁾ 그리하여 북한 인민군의 전쟁과 작전 수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실들이 베일에 쌓여있다.⁵⁾

- 1) 러시아·중국 사료의 공개 이후 진행된 연구 동향과 성과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잘 요약하고 있다. Kathryn Weathersby, "The Soviet Role in the Korean War: The State of Historical Knowledge"; Chen Jian, "In the Name of Revolution," in William Stueck ed., *The Korean War in World History* (Lexington,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4), pp. 61-92, 93-125. 최근까지의 국내외 학계의 연구동향에 관해서는 한국전쟁 55주년을 기념해 특집으로 『군사』 제55호(2005년 6월)에 실린 이완범, 김영호, 이재훈, 오규열, 이종환의 연구사적 논문 참조.
- 2)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서울: 나남출판, 2002).
- 3) [북한] 과학원 역사연구소,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9);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3권(동경: 구월서방 번인, 1972); 허중호·강석희·박태호, 『조국해방전쟁사』 1-3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허중호·강석희·박태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3권(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 4) 이에 관해서는 북한의 공간 전쟁사와 유관 자료들을 분석한 필자의 줄고, "북한의 한국전쟁수행' 연구를 위한 문헌 및 자료 분석," 『군사』 제55호(2005년 6월), 67-79쪽을 참조.
- 5) 몇몇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선구적인 저술과 논문들이 있다.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한국전쟁시기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제3호(1998년), 57-78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제3장;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군사』 제44호(2001년 12월), 45-75쪽;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집(서울: 국방군사편찬연구소, 2002), 575-627쪽. 미극동사령부가 노획 문서와 포로심문 결과에 의존해 1952년에 작성한 북한군 편람은 아

북한 인민군의 전쟁 수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 시기별로 북한 인민군의 구조와 편성이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파악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군대의 행동은 지휘구조, 편성, 무장 등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의미 있는 해석이나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정 시기의 전략의 운용은 해당 시기에 한 군대가 갖고 있는 편성과 무장에 기초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략과 작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지휘구조, 편성, 무장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필자는 개전 초기부터 인천상륙작전 직전까지의 북한군의 지휘체계와 편성에 관한 줄고,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지휘구조와 후방부대 편성”을 발표한 바 있으며,⁶⁾ 이 논문은 그 후속 작업으로서 낙동강전선에서의 패배와 UN군의 인천상륙으로 인한 군의 붕괴 이후 휴전 회담 개시 전까지 북한 인민군의 변모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북한 인민군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후퇴하다가 한편으로는 예비 부대의 재편성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패퇴한 일부 부대가 전투를 수행하면서 정규 전투부대로 재편해가는 기간이었다. 그만큼 구조상의 혼돈과 변동이 심한 시기였다. 또한 북한 인민군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는 대규모의 ‘중국인민지원군’을 참전시킨 중국과, 제도·무장·교리 등의 면에서 전쟁 전부터 북한의 군대를 조형해왔던 소련군사고문단과의 상호 교섭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북한 인민군 자체의 사정과 중국, 소련과의 교섭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야만 이 시기의 북한군의 변모 과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낙동강 전선에서의 패퇴로부터 휴전회담 개시 전까지 북한 인민군

적까지 중요한 참고서다. US Far East Command,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typed in 1952).

6) 김광수,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지휘부조와 후방 부대 창설,” 『육사논문집』 제59집 제1호(2003년 2월), 37-77쪽.

의 변모를 밝히고자 한다: (1)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 인민군 지도부의 대응과 군의 붕괴 과정, (2) 중국국의 참전 이후 양군 간 연합작전과 북한군 지휘권 문제, (3) 북한 인민군의 지휘 체계와 작전 지휘, (4) 북한 인민군의 재편성, 재무장, 재교육 연구를 위해서 이 논문은 북한의 공간 역사, 최근에 가용해진 소련과 중국의 일차 및 이차 사료들을 활용할 것이다.⁷⁾ 특히 소련과 중국 자료들은 중요한데 그것은 북한측이 그들의 공간 전쟁사

7) 러시아 1차 사료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가용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3권(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TsAVMTs GSh VS RF(Arkhiv-TsAMO-A) Fond 16, Opis' 3139, Delo 133, "Zhurnal boevykh deistvii v Koree s 28 iyunia 1950 g. po 31 dekvria 1951 g."(조선전쟁전투일보, 1950년 6월 28일(25일)-1951년 12월 31일)(이하에서 앞의 자료는 『라주바예프 보고서』, 뒤의 자료는 Zhurnal로 축약 인용). 이외에 1차 사료에 준하는 2차 사료로는 V. N. Razuvaev, "Nekotorye vyvody iz boevogo opyta koreiskoi narodnoi armii v Koree"(한국에서 조선인민군의 전쟁 경험으로부터의 몇가지 결론)(Dissertatsiia na soiskanie uchenoi stepeni kandidata voenykh nauk, 1957); S. S. Lototskii ed., *Voina v Koree 1950-1953* (한국전쟁 1950-1953)(Sankt-Petersburg: Poligon, 2000); A. V. Torkunov, *Zagodochnaia voina: Koreiskaia konflikt 1950-1953 godov* (수주께끼 전쟁: 한국전쟁 1950-1953년)(Moskva: ROSSPEN, 2000). 북한 인민군에 관한 최근의 러시아측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가브리엘 코로트코프 지음, 어진주 옮김, 『스탈린과 김일성』 I-II(서울: 동아일보사, 1992); O. Iu. Kuznetsov et als.(eds.), *Voina v Koree 1950-1953: Vzgliad cherez 50 let*(조선전쟁 1950-1953: 50년후의 견해)(Moskva: Pervoe Marta, 2001); A. S. Orlov and V. A. Gavrilo, *Tainy koreiskoi voiny*(한국전쟁의 비밀)(Moskva: Veche, 2003); Popov, I. M., S. Ia. Lavrenov and V. N. Bogdanov, *Koreia v ogne voiny: k 55-letiiu nachala voiny v Koree 1950-1953 gg.*(전화속의 한국: 한국전쟁 발발 55주년에 붙여)(Moskva: Kuchkovo Pole, 2005). 중국측의 자료 중 1차사료를 편집해 낸 책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毛澤東, 『建國以來 毛澤東文稿』(內部本)(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7-1992), 第1-4冊; 彭德懷傳記編寫組, 『彭德懷軍事文選』(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8);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編, 『周恩來軍事文選』 第4卷(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7);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周恩來年譜: 1949-1976』 上卷(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 王焰 主編, 『彭德懷年譜』(北京: 人民出版社, 1998). 2000년에 중국이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을 기념해 공간 전쟁사로 발간한 책은 전쟁 중 중국측과 북한측의 교섭에 대해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솔직하게 다루고 있다.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所, 『抗美援朝戰爭史』 全3卷(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

에서 숨기는 사실들과 데이터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 붕괴

미 제10군단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북한군이 경험한 충격은 심각한 것이었다. 그것은 북한군의 잘못된 전략 운용의 결과였다. 첫 번째의 잘못은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부산점령에 몰두해 후방을 매우 취약한 상태로 두었다는 점이다. 북한군은 미국의 참전 이후 낙동강전선 전투가 계속될 때까지 나름대로 후방 해안선 방어에 신경을 써서 방어대책을 마련했다. 남한 해안의 중요 항구지역에는 해군 육전대 2개 여단(12개 대대)이 신편되어 부산 배치되고 북한의 해안 지역에도 주요 항구 지역을 중심으로 3개 여단이 배치되어 모두 5개의 여단이 배치되었다. 주요 항구 지역의 간격에는 남한 지역의 경우 8개의 경비연대를 대대별로 나누어 배치하고 북한지역에도 유사한 방어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병력들은 해안연대(육전대)를 제외한다면 간부들은 민간 당원들을 군에 소집해 급히 기본훈련을 마친 후 장교로 임관시켜 배치한 상태였고, 하급 병사들 역시 훈련기간이 짧았고 급양이 형편없었으며, 연대 당 박격포 수문, 기관총 몇 정이 무장의 전부였다.⁸⁾ 1950년 8월의 낙동강전선 전투에 가담한 13개의 사단들이 미 공군의 폭격으로 막심한 손실을 내고 격퇴되자 김일성은 개전 후에 신편한 제7, 제9사단과 제16전차여단, 제17전차여단을 증강해 8월 31일 밤부터 부산을 향한 최종공세를 시행했다. 8월말에서 9월초에 걸쳐 전선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던 중국의 모택동과 소련고문단이 김일성에게 유엔군의 후방 상

8) Torkunov, *ibid.*, pp. 79-81;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육군본부 역, 『한국전쟁』 제2권(서울: 명성출판사, 1986), 38쪽; 서용선, “한국전쟁시 점령정책 연구,” 서용선 외, 『점령정책·노무운용·동원』(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46-47쪽;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2호(1999년), 245쪽.

륙에 대비하여 주력부대의 일부분을 서울 지역으로 돌릴 것을 권고했으나 그는 이를 무시하고 목전에 어른거리는 부산 점령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력(全力)을 투입하였다.⁹⁾ 이 결과 인천에 미군의 상륙부대가 공격했을 때 이에 대응할만한 전략예비대는 없었다.

미 제1해병사단이 인천에 상륙한 후 김일성은 9월 17일 민족보위상 최용건을 서해안방어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서울로 파견해 서울 방어에 전력을 다했으나 기습의 충격과 UN공군의 계속된 폭격으로 인해 서울 주변에 있던 부대의 집결은 쉽지 않았다. 당시에 서울, 수원, 인천 주변에는 개전 이후 편성작업에 들어가 8월 2일에 편성 완료된 제18여단이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무장은 변변치 못했다. 이 여단은 16대의 탱크[제42독립탱크연대]와 함께 시행한 9월 17일 새벽 부평 전방의 반격작전에서 미군의 항공공격을 받아 병력은 분산되었고 공습과 미 해병의 바주카 공격에 의해 탱크 16대 모두를 상실하였다.¹⁰⁾ 최용건이 당장 끌어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철원의 제25교육여단, 사리원의 제27교육여단, 서울의 제31서울경비여단,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이 있던 제70, 제75, 제76, 제78독립연대들이었다. 이 부대들은 훈련 중이던 병력들로 구성되었고 미군 폭격을 피해 야간에 이동하여 서울에 도착해서야 중화기를 분배받는 등 충분한 전력을 기대할 수 없는 신평 부대에 불과했다. 최용건은 이외에도 9월 18일 진남포, 해주, 원산, 수원에 있던 제41, 제44, 제45, 제46독립탱크연대들을 서울로 불러들였¹¹⁾ 이후에도 제43독립탱크연대가 원산으로부터 서울로 이동했으나¹²⁾ 미

9) 김광수, 위의 논문, 247-249쪽;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Kansas: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pp. 72-73; 이상조-황용주 대담, “김일성은 모택동의 후퇴 충고를 묵살했다,” 『월간중앙』 1990년 8월호, 292-293쪽.

10) Lototskii, *op. cit.*, p. 123. 미군의 포로신문결과 이 탱크부대는 제42독립탱크연대였음이 확인되었다. Lynn Montross and Nicholas A.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Washington D. C.: Historical Branch, G-3, Headquarters U. S. Marine Corps, 1955), p. 325.

11) Zhurnal, 1950년 9월 16-18일자 참조. 9월 18일 이후 서해안방어사령부는 더 많은 부대

군의 폭격으로 대부분 붕괴되었다. 이 부대들은 서울 서측 외곽방어에 투입되어 격렬한 전투를 벌이며 9월 25일까지 미 제10군단의 서울점령을 지연할 수 있었지만 9월말에는 완전히 전의를 잃고 분산하여 후퇴했다. 이 당시의 북한군에 대해 소련고문단장 바실리에프는 이때의 혼란상에 대해 훗날 “…… 그것은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다. 9월 17일 최용건 국방장관이 서울부대를 재조직하려했지만 상륙한 미 해병부대의 서울 진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때처럼 인민군 총사령부의 무력함과 우유부단함을 보아야 했던 때는 없었다”고 회고했다.¹³⁾

서해안사령부를 편성할 시점인 9월 17일 김일성은 충격 속에서 앞으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이날 로동당 정치위원회에서 민족보위상과 전선사령부가 책임지고 남한에서 동원한 인원으로 9개 사단을 만들고 북한에서 6개 사단을 9월 30일까지 편성하라고 지시하였다.¹⁴⁾ 그러나 문제는 이 사단들의 편성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경험있는 간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인원들을 묶으면 사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과 전선사령관 김책은 상황을 잘못 파악해 마지막으로 낙동강전선 부대의 포위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파국을 자초하였다. 9월 18일 한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스탈린이 슈티코프 대사를 통해 김일성에게 낙동강전선에서 4개의 정규사단을 끌어올려 서울 주변의 방어를 강화하라는 지령을 내렸으나¹⁵⁾ 김일성은 이에 대해 매우 미온적으로 반응했다. 이 지

를 서울에 끌어 모아 3개 여단, 9개 독립보병연대, 4개 독립 전차연대, 경비연대 등 잡다한 부대들이 소속되었다. Lototskii, *ibid.*, p. 125.

12) 이 연대에 관해서는 Montross and Canzona, *op. cit.*, p. 326 참조.

13) 코로트코프, 앞의 책, II, 66쪽.

1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의 발언, 「급변하는 군사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1950년 9월 17일), 『김일성 전집』 제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309쪽. 김일성은 이날 회의에서 전선사령부와 민족보위상이 책임지고 이 사단들의 조직을 9월 30일까지 끝내라고 말했다.

15) “Telegram from Fyn Si(Stalin) to Matveyev(Army Gen. M. V. Zakharov) and

령에 대해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9월 19일 제1, 제9사단과 제17기계화사단을 낙동강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불러들일 것을 결정하였다.¹⁶⁾ 그러나 하달된 실제 명령은 “현전선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급적 많은 병력을 수원지역으로 전용하라”는 것이었다.¹⁷⁾ 이 명령을 받은 전선사령관 김책은 9월 19일 몇 대의 탱크만을 가진 제105전차사단을 대전으로 북상시키고 제9사단을 서울로 올려 보낼 결정을 내렸다.¹⁸⁾ 실제로 9월 20일 영등포에 도착한 것은 제9사단의 제87연대뿐이었다.¹⁹⁾

최고사령부가 모스크바의 지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전선사령부는 더욱 편의적으로 생각했다. 전투력이 있는 보병사단을 빼내기 위해서는 전선의 북상에 의한 전선축소를 계획해야 했으나 그러한 조치가 당장 취해지지 않았다. 최고사령부는 9월 25일에야 제1군집단사령관(제1군단장)에게 대전으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날 19:00에는 제2군집단사령관(제2군단장)에게 방어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²⁰⁾ 그러나 이 명령은 전방부대의 현지 실정을 전혀 몰랐던 때늦은 명령이었다. 인천에서 진격한 미 제1해병사단은 9월 21일 영등포와 노량진을 점령함으로써 북한 인민군 제1

Soviet Ambassador to the DPRK T. F. Shtykov, approved 27 September 1950 Soviet Communist Party Central Committee Politburo,” translated by Alexandre Y. Mansourov,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s 6-7, pp. 107-108.

16) Zhurnal, 1950년 9월 19일자; Lototskii, *op. cit.*, 125쪽.

17) 일본육전사보급회 편, 육군본부군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제5권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의 개입』(서울: 명성출판사, 1986), 102쪽.

18) 허종호 외, 『조국해방전쟁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제2권, 44쪽. 이 책에는 사단명칭이 감추어져 있으나 필자가 차후 전투 경과에 비추어 제9사단과 제105전차사단임을 확인하였다.

19) 이 결정에 대해 주영복 소좌는 그의 회고록에서 김책 전선사령관이 제105전차사단과 제9사단의 제87연대를 긴급히 서울로 파견하라고 명령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서울: 고려원, 1991) 제1권, 502쪽. 차후에 제87연대만이 영등포에 도착한 것으로 볼 때 실제로 서울로 이동한 것은 제105전차사단과 제87연대였던 것 같다.

20) Zhurnal, 1950년 9월 25일자; 「마트베예프(자하로프 장군의 가명)가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 Torkunov, *op. cit.*, p. 86.

군단의 낙동강선으로부터의 후퇴로를 차단해버렸다.

또한 9월 21일부터 낙동강 전선의 인민군 사단들은 아래로부터 붕괴하고 있었다. 지휘관들은 명령 없이 서둘러 퇴각하고 명령 불복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제13사단에서는 사단장 최용진과 참모장 이학구 총좌가 서로 총을 겨누며 싸운 후 이학구 총좌는 UN측에 자진 투항했다.²¹⁾ 제2군단장 무정은 권총을 들고 예하 부대의 자의적인 후퇴를 막아보려고 했으나 예하 연대장들이 먼저 진지를 포기하고 도주했다.²²⁾ 전선사령부, 군단사령부, 사단은 따로 놓고 있었다. 9월 26일에는 최고사령부와 전선사령부간의 교신마저 끊겨²³⁾ 최고사령관 김일성은 낙동강 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

잘못된 전쟁지도에 의해 낙동강 전선의 주력부대를 완전히 UN군의 포위망에 빠뜨린 김일성은 9월말에도 비현실적인 예비부대 편성안에 매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측은 보다 신중하게 북한군 재건 문제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9월 26일 스탈린의 특사로 평양에 도착한 소련군 참모차장 자하로프 장군이 김일성과 슈티코프 대사, 바실리에프 군사고문단장을 만나 북한군의 사정을 듣고자 했을 때 김일성은 서울방어사령관 최용건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차후대책에 대해 ‘남한에서 9개 사단, 북한에서 6개 사단 편성안’을 되풀이했다.

자하로프 장군은 남한에서 9개 사단을 편성하는 안은 비현실적인 것이므로 기각할 것과 대신에 북한 지역에서 6개 사단을 편성하는 것을 엄중하게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김일성은 그 자리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듯 했으나 10월 1일 스탈린에게 병력과병을 간청하는 편지에서는 또다시 “남한에서 동원된 10만 명의 군대를 작전상 가장 유리한 지역들에서 이용하면서 장기

21) 사사끼 하루다까, 강창구 역, 『한국전쟁미사 하권: 반격과 휴전』(서울: 병학사, 1977), 484쪽.

22) 김석중, 『삭풍』(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92), 188쪽.

23) Zhurnal, 1950년 9월 26일자.

적인 전쟁에 대비하여 전 인민을 무장”시켜 대응하겠다고 썼다.²⁴⁾ 이보다 하루 앞서 9월 30일 자하로프의 보고를 받은 스탈린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의결로 추가적인 6개 사단 창설을 위한 장비를 10월 5일부터 20일 사이에 북한에 보내줄 것을 결정했다.²⁵⁾

UN군의 38선 돌파가 거의 확실해지자 10월 2일 소련 국방상 불가닌은 마트베예프[자하로프 장군]에게 “복잡한 상황하에서도 남쪽에 잔류하고 있는 낙오된 부대에서 무엇보다도 장교들은 제반수단을 이용하여 집단 또는 단독으로 북쪽으로 탈출하도록 긴급하게 지시하여야 한다”²⁶⁾고 강조했다.

10월 한달 동안 북한군의 조직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UN군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 끌어 모을 수 있던 부대는 모두 38선방어선에 배치했지만 훈련되지 않은 부대들은 단 한번의 충격에도 부서지는 유리잔 같았다. 북한군이 10월 10일 현재 38선 이북으로 철수시킨 병력은 인원수로 볼 때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93,498명을 헤아렸다.²⁷⁾ 9월 중순이래 새로이 사단으로 승격된 부대는 제18, 제19, 제27, 제31, 제32, 제41, 제42, 제43, 제45, 제46, 제47사단이었다.²⁸⁾ 그러나 이 병력은 급히 인원만을 보충해 연대에서 며칠만에 여단, 여단에서 며칠만에 사단으로 승격되었고, 어떤 부대들은 지역별로 7월중에 동원되어 무기도 없이 목총으로 훈련받던 독립 연대들이었다. 이 부대들은 경험 있는 간부들이 부족했고 무장도 충분치 않았으며 훈련, 장비, 전의가 극도로 불량했다.

김일성은 10월 11일 전 인민을 향해 결사항전을 외치는 방송연설을 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외국대사관과 함께 10월 15일에 평양을 버리고, 덕천을 거쳐 10월 20일 평북 대동 대유동으로 피신했다. 그는 제2군단장 무정을 평양방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결사항전을 명했으나 무정 역시 평양방위

24) 외무부 역, 『소련극비외교문서』(미출간 원고본) 제4권, 72쪽.

25) Torkunov, *op. cit.*, p. 95.

26) *Ibid.*, pp. 95-96.

27) Lototskii, *op. cit.*, p. 137.

28) *Ibid.*, pp. 136-143 참조.

가 무모함을 알고 방위를 포기하고 피했고,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였던 오백룡 사단장 역시 평양 방위를 방기하고 후퇴했다.²⁹⁾ UN군의 북진작전중에 북한군 신편부대들은 눈독듯이 분산되었다. 팽덕회가 처음 북한에 들어와 10월 하순에 보고 들은 북한과 북한군의 사정은 너무나도 딱했다.

북한이 현재 장병을 징집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해서, 16세부터 45세에 이르는 모든 남자를 징집하여 군에 배치하고 있다. 남자들이 군에 징집이 된 후, 남은 가족들은 돌볼 사람이 없으며, 일반 북한 사람들은 먹을 양식도 없다. 모든 것이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의 모험주의적 경향은 어디를 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군사지휘체계는 매우 조잡하고 질서정연하지 못하며, 19일 평양을 사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결국 3만명 가운데 얼마 안되는 병력만이 퇴각에 성공했을 뿐이다.³⁰⁾

3. 중국군 참전 초기 북한군의 재편과 연합작전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평양을 버리고 겨우 3만명을 이끌고 패주하고 있을 때인 1950년 10월 19일 중국군 26만명의 참전은 북한이 파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중국지원군이 제1차 작전에서 성공하고 UN군을 청천강 선에서 저지하자 곧 연합작전 문제가 제기되었다. ‘중국인민지원군’ 중심의 중·조 연합사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팽덕회, 김일성, 주북한 소련대사 슈티코프 간에 있었던 미묘한 갈등에 대해서는 이종석과 중국학자

29) 오백룡의 평양방어 포기과 이로 인한 철직(撤職)에 관해서는 박길룡·김국후, 『김일성 외교비사』(서울: 중앙일보사, 1994), 42쪽.

30) 『팽덕회가 모택동에 보고한 전문』(1950년 10월 25일), 양진삼, 앞의 논문, 589쪽에서 재인용.

양진삼에 의해 상세히 연구된 바 있다. 양진삼과 이종석이 잘 분석하였듯이 양국간에 연합사령부 구성은 일면 협조와 일면 갈등의 산물이었다. 김일성은 중국군 지원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북한군에 대한 지휘가 팽덕회와 연안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했다.³¹⁾ 우리는 두 사람이 다루지 않은 초기의 연합사령부 구성 논의와 북한군의 재편, 양군의 연합작전 지휘 관계를 좀 더 살피고자 한다.

중국이 연합작전 문제를 심각히 고려한 최초의 시기는 1950년 10월 1일 김일성과 박헌영이 연명으로 모택동에게 중국군의 파견을 간청한 서한을 보내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북한 상황은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다만 중국군의 참전만이 중요했지 참전 이후 양국과 양국 군대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랜 전쟁 경험을 갖고 있던 모택동은 10월 3일 김일성·박헌영의 서신을 받은 이래 중국군의 참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특사인 내무상 박일우를 통해 시급한 참전을 요청해 온 북한측에 중국군 참전 이후의 파견군의 법적 지위, 권한, 즉 행정협정 및 북한인민군과의 협동작전 문제 등 지휘권 문제를 확고히 해두고자 하였다. 박갑동은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 중국측에 의해 제시된 협정안을 소개하고 있다.

- (가) 연합사령부 및 참모부의 구성은 중국측이 정(正)이 되며 북한측이 부(副)가 된다.
- (나) 연합사령부의 구성원은 중국측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의견의 상위가 있을 때는 중국측의 의견에 따른다.
- (다) 동 기관의 용어는 중국어로 한다.
- (라) 중국군의 동의 없이 화전(和戰)에 관한 한 북한측은 여하한 국가와도 협정을 맺을 수 없다.

31) 이종석, 앞의 논문, 45-75쪽; 양진삼, 위의 논문, 587-603쪽.

- (마) 북한에서 중국군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조건, 그리고 우선적이며 무료로 북한측이 보장한다.
- (미) 북한에서 중국군은 북한의 법률을 적용 받지 않는다.
- (사) 북한의 철도, 도로 및 항만시설은 중국군의 관할 하에 둔다.
- (아) 필요한 경우 중국군은 북한주민을 검색 및 체포 취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³²⁾

이 협정안은 중국측이 참전 전부터 중국 주도의 연합사 구성과 전쟁 수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제안은 김일성과 북한고위층에 의해 심한 불안감을 야기했다. 평양으로부터 후퇴 시에 김일성과 함께 행동했던 중국대사관 시성문 참찬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김일성은 처음에는 중국군의 신속한 참전만을 고대하였으나 중공군의 대군이 참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는 조선에서의 북한군의 작전지휘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³³⁾ 박갑동에 의하면 김일성은 상황의 위급성에 쫓겨 중국측의 고압적인 이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박갑동의 말처럼 되었지만 중공군의 제2차 공세가 진행되기 전까지 중국지원군과 북한인민군의 작전 지휘에 관해서는 확실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10월 19일 중국지원군의 압록강 도강이 결정된 이틀 후인 10월 21일 새벽 팽덕회가 대동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났을 때 양군의 작전 협조 문제는 매우 모호한 상태로 둔 채 헤어졌다. 군사적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협력을 약속한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단지 중국지원군사령부에 연락장교 파견과 협조만을 약속했다.

한편 10월 21일 회견에서 김일성이 불과 3~4만의 패잔 병력을 통제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듣고,³⁴⁾ UN군의 급속한 북진으로 인해 중국지원군

32) 박갑동 지음, 구윤서 옮김, 『한국전쟁과 김일성』(서울: 바람과 물결, 1990), 125-126쪽.
 33) 양진삼, 앞의 논문, 588쪽.
 34) 홍학지 지음, 홍인표 옮김, 『중국이 본 한국전쟁: 인해전술의 전쟁기록』(서울: 고려원, 1992), 67쪽.

이 최소한 청천강선에 차후작전을 위한 집결지를 마련하기 전에 UN군이 압록강-두만강 선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급박함을 느낀 팡덕회는 중국군의 작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팡덕회는 10월 25일 밤부터 11월 5일 간에 진행된 제1차작전 기간 중에는 오로지 중국지원군의 작전에만 온 신경을 썼다. 그 동안 김일성은 공화국 대표로서 중국과의 협조를 위해 박일우를 심양에 보냈는데 중국측은 10월 25일 그를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당위원회 부서기로 임명했다.³⁵⁾

김일성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제1차작전 승리에 의해 안도감을 갖게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측이 이미 참전 전부터 일방적인 지휘 및 행정안을 제시한 것과 박일우를 마음대로 ‘중국인민지원군’의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및 ‘중공당’ 서기로 임명한 것을 보고 앞으로 강해질 중국의 입김에 대해 불안감이 깊어졌다. 실제로 중국측은 연합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동했다. 모택동은 팡덕회에게 보낸 11월 5일 전문에 ‘연합사령부 명의로 전과를 발표하지 말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발표하라’고 ‘연합사령부’를 언급하고 있었다.³⁶⁾ 아마도 중국측은 박일우를 통해 이미 연합사령부가 기능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는지 모르지만 김일성과 비연안계 북한지도부는 이에 대해 내심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10월말까지 불과 3~4만의 패잔병력을 통제하고 있던 김일성으로는 이를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는 없었다.

가장 곤란했던 시기에 중국지원군이 참전하여 UN군의 진격을 청천강에서 저지하고 있을 때 북한군의 패잔 사단들이 만포, 강계에 집결함으로써 북한군은 10월말-11월초에 패잔 병력들을 수습할 수 있었고 양군간의 작전협조문제는 시급히 해결할 사안이 되었다. 11월 5일까지는 북한군은 패주해 온 사단들을 묶어 서해안사령부와 동해안사령부의 통제하에 두는 한편, 만주에서 3개 사단씩으로 구성된 3개 군단을 구성해 차후 반격작전에

35) 양진삼, 앞의 논문, 589-590쪽.

36) 『建國以來 毛澤東文稿』, 648쪽.

쓸 수 있도록 예비부대를 재편성하고 훈련시킨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³⁷⁾

모택동은 제1차공세가 종결되자 바로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에게 김일성과 접촉하여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연합지휘부 구성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였다.³⁸⁾ 그러나 이에 대한 김일성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던 것 같다. 11월 7일 팽덕회는 재차 중국지원군사령부에 있던 박일우를 김일성과 슈티코프에게 보내 네 가지 문제를 제안했다. 그 중 양군간의 작전협조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적 후방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한다는 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북한 소련대사 슈티코프가 좋은 안이라고 함으로써 김일성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두 번째는 양군 배합(협동작전)문제로 김일성은 참모장교를 파견하여 통신연락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단일한 연합작전지휘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³⁹⁾

팽덕회는 이 회담 이외에도 몇 차례에 걸쳐 복상하는 북한군 제6사단, 제7사단이 덕천 부근에서 중공군과 조우하게 되었을 때 이 사단들을 더 이상 복상시키지 말고 그곳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제125사단과 협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지만 김일성은 이에 대해 거부하고⁴⁰⁾ 이 사단들을 강계-만포 지역에 집결하게 했다. 김일성은 이 사단들이 팽덕회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강계-만포에 집결시켜 새로 군단으로 편성하여 그의 지휘하에 움직이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팽덕회는 이러한 김일성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중공당 중앙에 보고했다. 결국 소련대사 및 군사고문단장은 군사적으로 합리성을 갖는 중국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태도였으나 북한군이 중국지원군의 지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만

37) Zhurnal, 1950년 11월 18일자.

38)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所, 『抗美援朝戰爭史』 第二卷, 167쪽; 이종석, 앞의 논문, 51-52쪽.

39) 양진삼, 앞의 논문, 590-591쪽.

40) 위의 논문, 591쪽.

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김일성은 중국군과는 연락관을 파견하여 느슨한 협조만을 유지하며 지휘나 작전 면에서 완전한 독자성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소련대사와 군사고문들도 중조연합사 창설이후 북한군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였던 것 같으며 소련고문단측의 이러한 우려는 김일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합사 구성 문제에 있어 김일성과 소련고문단측의 부정적인 반응에 접하자 팽덕회는 11월 5일 회담에서 슈티코프, 김일성, 팽덕회의 3인 지휘체제를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 소련대사와 김일성은 답변을 회피하였고, 팽덕회는 이 사정을 11월 11일 모택동에게 전문으로 보고하였다. 모택동은 즉시 팽덕회가 그에게 보낸 전문을 스탈린에게 전송하였다. 일찍부터 한반도가 미국의 세력권에 떨어지지 않도록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오던 스탈린은 현재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에 소련대사, 고문단장, 김일성이 지나치게 속좁은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그는 11월 16일 모택동과 북한측에 전문을 보내 중국지원군 위주의 단일한 지휘체제를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려주었다.⁴¹⁾ 결국 김일성은 스탈린의 최종 결론을 수용해야만 했다.

팽덕회는 차후작전에서 중국군과 북한군의 작전협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1월 15일 모택동의 특사로 선양에서 온 고강과 함께 다시 한번 슈티코프와 김일성을 찾았다. 이 회담에서 팽덕회는 또 한번 통일지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나 김일성의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양군의 협조된 배합작전을 수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슈티코프가 강력하게 그 필요성을 역설하자 김일성도 이에 대해 마지못해 수용해야 했다.⁴²⁾ 11월 17일 스탈린이 중국군 중심의 연합지휘부 구성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팽덕회는 실질적으로 제2차 작전을 자신의 구상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

41)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所, 앞의 책, 163쪽; 양진삼, 앞의 논문, 593쪽 참조.

42) 『彭德懷年譜』, 449쪽; 양진삼, 위의 논문, 592쪽.

다만 북한군의 운용에 대해서는 김일성의 동의를 얻는 형식을 취했다.⁴³⁾

팽덕회는 11월 13일 1차작전을 총결하는 중국인민지원군 제1차당위원회에서 이미 차후 작전구상을 확정한 상태이며 이 작전계획에서 북한인민군에 대해서는 UN군 배후에 침투해 들어가 제2전선을 구성하여 UN군의 후방 병참선을 교란함으로써 전체 작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우리들은 현재 적 후방을 정찰하고 적의 병참선을 공격할 항공정찰 수단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조직적인 유격전을 시행하여 적 후방의 운수와 교통을 습격·파괴하고,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며, 적정을 정찰함으로써 직접 배합작전을 시행해야 한다. …… 각군은 현 정찰조직을 활용하여 인민군 부대와 지방공작인원과 함께 적 후방에 들어가 활동한다면 그 작용은 매우 클 것이다.

남조선 후방에 들어가 적후보장 유격활동을 하는 것은 중대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적의 점령지역을 축소하고 아측의 점령지역을 확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자기의 인력과 물력(物力)을 확립하고 자기의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다. 적의 인력과 물력을 쇠약하게 만듦으로써 전략상 적의 병력을 분산하고 주전장(主戰場)과 배합하여 적을 섬멸하는 것이다.

현재 조선 전황을 보건대 남조선에서 유격전쟁을 전개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며 인민군은 적 배후에서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다.⁴⁴⁾

11월 15일 팽덕회, 슈티코프, 김일성 간에는 배합작전 문제가 심도 있게 토의된 것 같다. 당시까지 북한인민군은 11월 10일까지는 패잔사단들을 강계, 만포 지역에 집결시켜 제1군단과 제3군단으로 편성하고 있었고⁴⁵⁾ 평양, 원산이남-38선 이북에 존재하는 패잔 사단들이 제2군단으로 편성되어

43) 『彭德懷軍事文選』, 353, 358쪽.

44) 위의 책, 338-339쪽.

45) 이때 제3군단은 6개 패잔사단으로 제1사단(만포진), 제2사단(가창), 제8사단(토산), 제12사단(위원), 제13사단(정진), 제15사단(회천)으로 구성되었다. Zhurnal, 1950년 11월 10일자.

유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⁴⁶⁾ 그 외에도 뒤늦게 38선을 넘는 패잔 사단들과 여단들이 11월 초 이래 속속 회천, 강계지역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동해안에는 나남, 청진지역에서 41사단과 제23해안여단, 독립연대, 독립대대들이 지연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양군의 배합작전 원칙에 합의가 이루어지자 중국인민지원군의 차후공세에 맞추기 위해 다음날부터 인민군의 재편성사업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소련군측의 11월 16일자 전투일보는 “인민군최고사령부는 적 후방에서 활동하기 위해 각각 4개 사단으로 구성되는 5개 정도의 빨치산 군[군단]을 12월 1일까지 편성할 계획이다”라고 쓰고 있다.⁴⁷⁾ 그러나 곧바로 중국지원군의 차후작전 준비가 급해지자 북한군은 11월 17일까지 5개 군단의 편성을 급하게 마무리 지었다.⁴⁸⁾ 북한측이 중국지원군의 협동작전에 호응하기 위해 급히 군단의 편성을 서두른 것이다. 또한 김일성은 11월 17일 제2군단장 최현을 불러들여 차후 작전 방침을 설명하고 작전임무를 주었다.⁴⁹⁾

앞으로 진행할 작전에서 우리는 주타격방향을 전선서부에 두고 전반적 전선에서 반공격으로 넘어가며 주력부대들과 적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2전선부대들과의 배합작전을 적극 벌려 적의 기본집단들을 청천강, 장진호 반, 함흥, 청진 일대에서 포위소멸하고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을 적의 강점으로부터 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성과를 38선 이남으로 계속 확대하여 전쟁의 중국적 승리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작전적방침입니다. (중략)

46) 11월 21일 현재 제2군단 지휘하의 부대들은 약 3만명 규모였다; 제10사단(3,500명; 김화-의정부), 4사단(1,000명; 철원), 9사단(1,500명; 문산), 3사단(1,000명; 곡산), 27여단(6,000명; 금천), 31사단(6,000명; 원주), 23여단(6,000명; 신천, 삭령), Zhurnal, 1950년 11월 21일자.

47) Zhurnal, 1950년 11월 16일자.

48) Zhurnal, 1950년 11월 18일자.

49) 『김일성전집』 제12권, 416-419쪽; 강석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제2권, 100-105쪽 참조.

주력부대들이 반공적으로 넘어갈 때 제2전선부대들은 적극적인 적후투쟁을 벌려 적의 뒤통수를 타격해야 합니다. 주력부대들의 반공격에 합세하여 적후부대들이 맹렬한 배후타격을 들이대면 적들을 큰 포위망에 몰아넣고 모조리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제2군단의 기본임무는 황해도와 강원도 일대의 넓은 지대를 차지하고 적극적인 적후투쟁을 벌려 적의 뒤통수를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전투행동으로 도로와 교량을 파괴, 장악하고 적의 수송로와 퇴로를 차단하며 적과 적의 증원부대들을 소멸함으로써 반공격작전의 성과를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제2차작전이 시작되면 제2군단은 평양-개성간, 평양-신계간, 양덕-원산간 도로들을 장악하고 패주하는 적들을 맞아 타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력부대들의 공격성고가 확대됨에 따라 적들이 패잔병들과 작전적 예비대들로 38도선 계선에서 중간방어를 하려고 발악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38도선 계선을 장악하고 적증원부대들을 소멸하며 적의 중간방어기도를 완전히 분쇄하여야 합니다.⁵⁰⁾

이 명령은 11월 15일의 배합작전 합의의 맥락에서 보면 팽덕회의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2군단은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UN군 전선 후방인 수안, 신계, 시변리, 평강, 철원, 금화에서 UN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후방보급소를 공격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⁵¹⁾ 최근의 북한공간사는 최현의 제2군단의 활동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지만 후퇴시에 가장 많은 병력을 인솔하고 돌아와 ‘2중영웅’의 칭호를 받았으며 11월 18일 군단장으로 임명된 방호산의 지휘하에 제5군단(6사단, 12사단, 24사단, 38사단)이 강계, 위원에서 재편성을 끝내고 중국지원군 제42군과 연합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공군의 제2차작전이 시작되자 제5군단 주력은 제42군과 연합하여 맹산, 양덕에서 한국군 제2군단의 측방과 배후를 위협했다. 38선으로

50) 『김일성전집』 제12권, 418-419쪽.

51) 『조국해방전쟁사』 제2권(1981년판), 221-227쪽.

부터 북상 중에 제5군단에 소속되게 된 제4사단, 제7사단은 11월 27일 평양 동북과 원산 남쪽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였다.⁵²⁾ 장진호 전투가 진행중이던 12월 3일 팽덕회의 결정에 의해 제3군단의 제1, 제3사단이 중국군 제9병단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강계를 떠나 동해안으로 향했다.⁵³⁾

중국군의 제2차작전시 팽덕회의 전략구상에 의해 시행된 북한군 제2전선 부대들의 활동은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이 12월 3일 평양-원산선 방어를 포기하고 38선까지 후퇴를 결심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물론 청천강과 장진호에서 중국지원군 제13병단과 제9병단 주력의 작전 없이 그러한 성과를 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애플만이 썼듯이 38선 북부의 중앙 산악지대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한 것은 중공군이 아니라 북한군의 제2군단, 제5군단이었다. 12월 4일 현재 제38군의 선두부대들은 북한군 제1군단과 함께 평양에 접근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미 제8군은 12월 1일 현재 당시의 평양-원산선 이남의 북한의 게릴라 병력에 대해 약 11,500-15,000명으로 과소평가하여 추산하고 있었으나⁵⁴⁾ 실상은 3만 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⁵⁵⁾ 워커장군은 이 병력에 의한 측후방 위협을 무시하고 평양을 고수할 수 없었다. 애플만은 미 제8군이 통찰력만 있었다면 평양-원산선을 고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⁵⁶⁾ 그것은 청천강 전투 결과로 인한 사기 위축과 북한군의 '배합작전'으로 인한 후방 불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배합작전'은 무장과 편성이 충실하지 못한 당시의 북한군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었으며 미 제8군에게는

52) Zhurnal, 1950년 11월 27일자.

53) Zhurnal, 1950년 12월 3일자.

54) Roy E. Appleman,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 (Texas: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9), p. 407.

55) 1950년 11월 21일 현재 38선 이북의 북한 게릴라 병력은 3만명이며, 그후로 남진한 제5군단의 주력과 원산 이남의 제4사단, 제7사단을 포함하면 4만명이 넘을 것이다. Zhurnal, 1951년 11월 21일자, 27일자 참조.

56) Appleman, *op. cit.*, p. 410.

위협적이었다. 후일 김일성과 북한공간저술들이 이 시기의 전략계획을 마치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지만 북한군 부대들의 활약은 인정해야 한다.

4. 중국군의 제3차 공세 이래 중·조 연합작전

12월 8일 중·조연합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창설된 이후부터 북한군의 전방 군단들에 대한 지휘권은 완전히 팽덕회의 사령부에 있게 되었다. 김일성의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사실상 팽덕회의 명령을 예하 부대에 내리는 기관에 불과했다. 중국군의 제3차 공세 준비 단계부터 팽덕회의 중조연합사령부는 북한군 군단들에 대해 직접 작전명령을 내렸다. 12월 15일 24시에 발령된 팽덕회의 명령에 의하면 북한인민군 제2군단과 제5군단의 임무는 중국지원군의 차후작전을 위하여 먼저 행군하여 제2군단은 영주까지, 제5군단은 원주 이남까지 UN군 후방 깊숙이 들어가 서울에서 대전, 대구에 이르는 UN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적 후방에서 반미/반이승만 선전을 시행하는 것이었다.⁵⁷⁾ 팽덕회는 12월 22일 제3차작전을 위한 명령 가운데 북한군 제2군단과 제5군단에게 전면적 공세에 앞서 양구, 인제, 음양리, 부평리에서 38선을 침투하여 홍천까지 들어가 제2전선을 형성하라는 임무를 주었다.⁵⁸⁾ 이에 따라 두 군단은 12월말까지는 홍천 동북까지 침투하는데 성공했다.⁵⁹⁾

이러한 지휘체계 아래서 작전지휘상 가장 민감한 문제가 제3차작전 종결 시점에 나타났다. 팽덕회는 12월중에 당시에 추위와 미군의 항공공격으로

57) 『彭德懷軍事文選』, 356쪽.

58) 『彭德懷軍事文選』, 358쪽.

59) Zhurnal, 1951년 1월 1일자.

인해 생긴 병참상의 문제와 병력의 피로를 고려해 모택동에게 38선 이북에서 정군하고 부대를 3-4개월 휴식시킨 이후 차후공세를 시행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모택동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러한 기회에 38선을 넘게 되면 정치적으로 유리해진다는 논리를 펴면서 한차례의 공세를 강행하도록 명령했다. 팽덕회는 이를 수용하여 서울점령까지 실현한 뒤 부대를 휴식시키기로 하고 1950년 12월 31일 제3차 공세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약 일주일의 작전에서 중공군의 보급문제와 병력의 피로는 극도에 달했다. 그는 1월 4일 모택동에게 전군을 정지시키고 2개월간의 휴정에 들어가는 안을 건의하여 허락을 얻었다. 이 당시에 인민군 제2·5군단은 방호산의 지휘하에 38선 이남의 흥천 동북과 횡성 지역에 침투하였고 1951년 1월 1일에 5군단장 방호산은 1월 3일까지 2·5군단의 전병력으로 흥천지역과 이 지점의 남동쪽으로 진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⁶⁰⁾ 그러나 1월 4일 24시에 발령한 명령에서 팽덕회는 “방군단장은 제2군단과 제5군단을 통일지휘하여 원래의 부서와 힘을 합쳐 흥천과 횡성 지구의 적을 섬멸한 후 명령을 대기하라”고 명령하였다.⁶¹⁾ 팽덕회는 1월 5일부터 조·중 양군에게 북위 37도선에까지 추격작전을 전개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추격작전은 4일간 더 연장되었다.

1월 7일까지 북한군 제5군단은 원주 남쪽에서 미 제10군단 부대(제2사단)과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고 제2군단은 원주 동남쪽과 강릉 지역에서 후퇴하는 국군 제3사단 정찰대, 제9사단, 수도사단을 추격하는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다.⁶²⁾ 이러한 상태에서 팽덕회는 1월 8일 제13병단 전군에 공세를 종결하고 차후 2개월에 걸친 휴식에 들어간다는 명령을 내렸다. 아마도 이때 북한군 제2·5군단에도 동시에 진격 중지의 명령이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⁶³⁾ 이러한 사실을 안 라주바예프는 “누가 전투에 이기고도 적을 추격하

60) Zhurnal, 1951년 1월 2일자.

61) 『彭德懷軍事文選』, 363쪽.

62) Zhurnal, 1951년 1월 7일자.

지 않는가? 이런 명령을 내린 사령관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며 팽덕회를 비난하였다. 그는 승세를 타고 조중연합군이 추격을 계속하여,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 적을 바다로 몰아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⁴⁾

연합사의 작전중지 명령을 받은 김일성은 그날로 즉시 중국대사관 참찬인 시성문에게 불만을 터뜨렸고 시성문은 이를 전보로 팽덕회에게 알렸다. 김일성의 항의 요지는 서울 점령 후 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추격을 중지시킨 것을 잘못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의 거센 항의의 배후에는 소련군사고문단이 있었다. 소련고문단은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의 심각한 인원손실과 보급물자 부족에 관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일반적 작전술 논리상 승전한 전투 후에 과감하고도 신속한 추격작전을 벌여 전투의 결과를 가능한 최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작전원칙에 입각하여 팽덕회의 작전지도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주박한 소련군사고문단의 의견은 당시 북경에서 주중국 소련군사고문단장으로 있었던 자하로프 장군에게 전달되었고, 자하로프 장군은 1월 9일 중국군 총참모장 섭영진을 만나 팽덕회의 진격정지 명령에 대해 항의하였다. 섭영진은 현지의 중국인민지원군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며 자하로프 장군에게 해명하였으나 자하로프의 노기를 풀기는 어려웠다.⁶⁵⁾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을 보고 받은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현지 작전을 지도하는 팽덕회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문을 스탈린에게 송달하였다. 중국과 북한주재 소련군사고문단 양측의 보고를 받게 된 스탈린은 팽덕회의 입장이 옳다는 판단을 내리고 1월 9일 “팽덕회 등 연합사 지휘부의 판단이 정확했으며,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모택동에게 보냈

63) 이것은 스탈린이 추격을 주장하는 주박한 군사고문단의 의견과 휴정명령을 내린 팽덕회의 결정으로 인한 갈등에 관해 보고받은 뒤 팽덕회의 결정을 옹호하며 1월 9일에 “국제 여론상 중국의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중국]지원군은 38선 이북과 그 양측의 해안을 통제하고 인민군이 계속 남진해서 추격하는 것이 가하다”는 전문을 보낸 것에서 확인된다. 『彭德懷年譜』, 465쪽.

64) 홍학지, 앞의 책, 110쪽.

65) 양진삼, 앞의 논문, 597-598쪽.

다. 이 와중에서 북한군 전방 군단의 차후작전의 문제가 미묘한 문제로 떠오른 것 같다. 위에 언급한 1월 9일 전문에서 스탈린은 중국지원군의 정치와 휴식은 인정하되 북한군만의 진격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택동에게 보냈고 모택동은 동일한 취지의 전문을 팽덕회에게 내렸다.⁶⁶⁾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1월 10일 밤에 지원군 사령부를 찾아가 팽덕회에게 부대의 휴정시간을 단축하고, 계속 남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방문목적은 팽덕회의 정군 명령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을 점령한 김에 남한 전체를 휩쓸어 통일을 이루고자 희망했던 김일성과 박헌영 두 사람은 소련군사고문단장의 의견을 내세우며 팽덕회가 잘못된 명령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다. 팽덕회는 현재 악화된 병참사정이나 추위, 미군 폭격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한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남진을 한다면 리지웨이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격 강행을 주장하는 두 사람에게 팽덕회는 분통을 터트렸다.

당신들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모두 희망사항에서 출발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들은 이전에 미국이 절대로 군대를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미국이 출병을 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와서 또 다시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서게 될 것이라고 단정지으면서 만약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또다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당신들은 속전속결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당신들은 전쟁의 승리의 요행을 바라면서 인민의 고결한 혁명사업을 갖고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다시 패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중국 인민지원군'에 대한 보충과 휴식을 위해서는 2개월이 필요하며, 그중 하루도 모자라서는 안된다. 아마도 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중략) 북한군 4개 군단 약 12만 명은 이미

66) 『彭德懷年譜』, 465쪽; 양진삼, 위의 논문, 599-600쪽.

2개월 동안 휴식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직접 지휘하여 당신들이 희망하는 바처럼 계속 남진을 해도 된다.⁶⁷⁾

이날 팽덕회와 김일성·박헌영 간의 논쟁은 급기야는 그 동안 스탈린과 모택동 사이에 오간 전문을 서로 검토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두 사람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명확한 의사를 알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후로도 북한지도부는 계속 불만을 갖고 있었다.

팽덕회가 1월 10~11일 김일성과의 회견에서 북한군에 대해서는 북한군 자체로 작전을 수행하려면 수행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면 김일성은 이때에 전방의 북한군 2개 군단의 작전을 마음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실제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김일성이 이때 북한군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는 없다. 실제 나타난 전투 양상을 통해 본다면 최현의 북한군 제2군단은 1월 중순에도 계속 제천, 영월, 영주까지 남진하며 작전을 계속하였던 반면, 방호산의 제5군단은 1월 8일 원주에서 미 제2사단의 반격을 받은 후 횡성으로 철수하였다. 최현의 제2군단은 평창, 영월, 영주까지 진출하여 긴 돌파구를 형성하며 이를 제거하려는 국군 제3사단, 제7사단, 미군 제1해병사단과 1월 내내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⁶⁸⁾

추측컨대 최현은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영월, 영주로 부대를 진격시켰던 것 같으며 연안계의 방호산 군단장은 팽덕회의 1월 8일 진격정지 명령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군 제6사단 제15연대에 소속해서 참전했던 김중생은 북한군 제5군단에 속해 있던 제6사단 참전자들의 증언과 그 자신의 경험에 입각하여 그의 제6사단이 제3차공세시 원주에서 중국군 팽덕회의 전략 방침에 따라 더 이상의 남하공격은 중지되고 38선으로 퇴각했다고 쓰고 있다.⁶⁹⁾ 한편 최현의 제2군단은 중국지원군 주력과의 배합 없이 단독

67) 위의 논문, 600-601쪽.

68) Zhurnal, 1951년 1월 14일자, 15-24일자;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 C.: US GPO, 1990), pp. 216-227.

69)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211쪽.

으로 용감하게 평창, 영월, 영주까지 돌진했지만 식량부족, 추위, 국군과 미군의 반격 및 소탕에 큰 타격을 입고 안동까지 진출했던 제10사단을 남겨둔 채 1월 하순 경 38선 이북으로 험난한 철수를 해야 했다.

이렇게 북한지도부와 팽덕회가 냉랭하게 관계를 끊고 독자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모택동은 김일성을 타이르기 위해 직접 나섰다. 북한군의 단독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인 1월 16일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부대의 충실을 기하지 않을 경우 “1950년 6월부터 9월에 걸쳐 북한인민군이 저지른 과오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될 것이다”고 김일성의 아픈 과거를 은근히 찌르며 팽덕회의 2개월 휴정안을 옹호하는 전문을 보냈다.⁷⁰⁾ 김일성은 1월 16일 밤에 북한군 최고사령부를 방문하여 18일까지 머무르며 회담을 가졌던 팽덕회에게 중국군과 협조없이 북한군만의 단독적 추격작전은 불가능하며 또한 모험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⁷¹⁾ 제3차작전이 끝난 후 북한군 전방 군단들은 1951년 1월말부터 그동안 거의 휴면 상태에 있었던 전선사령부가 재차 가동되고 조중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김웅이 조선인민군 전선사령관을 겸하게 됨으로써 그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⁷²⁾ 여기에 속해있던 군단은 흥천-인제-동해안 간의 산악지대를 담당한 제2, 제3, 제5군단이였다. 이후로 김웅은 1952년까지 인민군 전선사령관으로 동부전선에서 전방작전을 지휘했다. 중국지원군의 개입 이래 서해안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리권무의 제1군단은 휴전회담 시작 전까지 내내 중국지원군 제13병단(제5차공세 당시에는 제19병단)에 직속해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제4, 제6, 제7군단은 최고사령부에 직속하여 주로 동서해안의 후방 지역을 담당하면서 미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김일성은 인민군 총

70) Torkunov, *op. cit.*, p. 136.

71) *Ibid.*, p. 130.

72) 김일성은 1월 21일 총참모장 남일에게 전선참모부(전선사령부) 편제를 작전국장을 시켜 준비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일성전집』 제13권, 83쪽. 김웅은 1월 31일 시점에 전선사령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선사령부의 재가동은 1951년 1월 말로 보인다. 『彭德懷軍事文選』, 372쪽 참조.

사령관으로서 다만 제4, 제6, 제7군단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휴전회담이 개시되기 전까지 이러한 지휘체제가 유지되었다.

5. 북한군의 재편성과 재무장

생존이나 멸망이냐를 가름하는 위기에서 북한군의 재편성의 여유를 마련해 준 것은 중공군의 제1차 공세였다. 이 공세에 의해 UN군의 진격이 청천강 선에서 정지되자 북한군지도부와 소련고문단은 10월말 재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슈티코프 대사를 통해 10월 30일에 스탈린에게 보고된 북한군 개편안은 중국과의 협의 하에 만주의 관전, 해룡, 연길지구에 각각 3개 사단으로 구성된 3개 예비군단과 각 병과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각 병과학교는 통화에 5,000명 정원의 보병학교, 1,500명 규모의 정치학교, 류하지구에 1,500명 규모의 전차연습부대, 연길지구에 2,600명 규모의 항공학교를 운영하기로 계획되었다. 만주지역의 예비군단들과 병과학교와 통괄지휘는 최용건에게 맡겨졌다. 교육을 위해서는 각 학교와 사단에 소련고문관들이 배치될 계획이었다. 슈티코프는 특히 소련고문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학교기관과 각 사단에 우리 소련군장교와 군사고문관이 없으면 북한은 1년이 걸려도 전투준비태세를 완료할 수 없을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며 당시의 북한군의 혼란과 곤란, 소련고문단 배치를 강조했다.⁷³⁾ 계획이 보고된 후 김일성은 11월 2일 슈티코프 대사를 통해 스탈린에게 소련고문을 파견해달라는 공식전문을 발송했다.⁷⁴⁾ 이 편성작업은 11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가 곧바로 북한군인들이 만주로 이동하였고, 김일성은 11월 8일 최용

73) Torkunov, *op. cit.*, p. 121.

74) G. I. Korotkov, “I. V. Stalin I Koreiskaia voina,” in O. Iu. Kuznetsov, ed., *Voina v Koree, 1950-1953: Vzgljad cherez 50 let*, p. 87; 외무부 역, 『소련극비외교문서』 제4권, 82-83쪽.

건을 불러 재편성의 임무를 맡겼다.⁷⁵⁾

예비군단의 편성 작업과 동시에 북한군은 강계로 후퇴해오는 패잔병과 패잔 사단들을 수습하여 이들을 군단으로 재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일성이 10월 21일 팽덕회와 처음 회견을 가졌을 때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사단은 평양에서 안주 쪽으로 철수한 제46, 제47보병사단, 제105전차사단, 제17기계화여단 등 4개 사단 약 3만 여명에 불과했다.⁷⁶⁾ 이들 사단들이 가장 먼저 제1군단으로 개편되었다. 10월말에 김일성은 양덕에 남아있던 전선사령관 김책과 전 제2사단장 최현에게 적 후방에 남아 '적후투쟁'을 조직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후퇴해오던 38선을 넘어 후퇴해오던 제3, 제10, 제4, 제9사단의 패잔병력과 9월말-10월초에 신편되었다가 38선을 넘어 공격하는 UN군에 의해 격파되어 산골지역에 숨어있던 제31사단, 제23여단, 제27여단의 패잔병력들은 문산, 금천, 금화, 철원, 곡산, 원주 등지에 흩어져 게릴라전을 수행하고 있었다.⁷⁷⁾ 이 병력들이 10월말 경 새로 '적후부대사령관'(후에 2군단장)으로 임명된 최현에 의해 지휘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⁷⁸⁾ 11월 10일에는 그 동안 강계로 집결한 제1, 제2, 제8, 제12, 제13, 제15사단의 패잔 병력을 묶어 제3군단으로 편성했다.⁷⁹⁾ 그 후에도 북한군

75) 김일성, 『예비군을 준비할 데 대하여』(1950년 11월 8일), 『김일성전집』 제12권, 403-405쪽. 여기서 김일성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군사부사령관에게 준 지시라고 하여 실명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가 후에 통화사령부를 통괄했던 최용건임이 틀림없다.

76) 김일성과 팽덕회의 1950년 10월 21일 대유동 회견에 관해서는, 柴成文·趙勇田, 윤영무역,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판문점담판』(서울: 한백사, 1991), 105-112쪽 참조.

77) Zhurnal, 1950년 11월 21일자. 북한공간사에 의하면 김일성이 선견지명을 가지고 적후투쟁을 하라고 10월 14일에 명령했고, 제2전선부대들은 10월 16일에 회의를 갖은 후 본격적인 활동은 10월말부터 이루어졌다고 쓰고 있다. 강석희, 앞의 책, 109-111쪽. 이 적후투쟁이 김일성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10월초 모택동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는 박명림의 견해가 옳다. 박명림, 앞의 책, 522-523쪽.

78) 주북한 중국대사관 시성문에 의하면 김일성이 평양을 떠나 후퇴할 때 무선연락이 되지 않아 대대장급 장교전령을 보내 제2군단에 적후투쟁을 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한다. 柴成文·趙勇田, 앞의 책, 105쪽.

79) Zhurnal, 1950년 11월 10일자.

패잔병들은 계속 강계, 만포 지역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11월 15일에 소련대사, 군사고문단장, 김일성, 팽덕회 간에 차후작전에서 양군간에 ‘배합’작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가 이루어지자 북한측은 그날부로 즉각 강계, 만포 지역에 집결한 부대들로 2개의 군단을 더 편성하여 총 5개의 ‘빨치산’군단 편성에 들어갔고 11월 17일에 편성을 완료하였다.⁸⁰⁾ 물론 이때 각 군단에 소속된 사단들은 보유한 인원도 1,000명에서 6,000명까지 진폭이 컸고 장비는 소총과 기관총 몇 정, 박격포 몇 문에 불과했으며, 병사들의 행색은 군복을 입은 자, 사복을 입은 자, 미군복을 입은 자들로 다양각색이었다.⁸¹⁾ 신편된 군단의 군단장에는 과거에 공적을 세운 사단장들이 임명되었다: 제1군단장-리권무(전 4사단장), 제2군단장-최현(전 2사단장), 제3군단장-김광협(전 1사단장), 제4군단장-최인(?) (전 12사단장), 제5군단장-방호산(전 6사단장), 제6군단장-최용진(전 13사단장), 제7군단장-무정(전 2군단장) (숙청 후 리영호, 전 3사단장), 제8군단장-김창덕(전 5사단장).⁸²⁾

북한군은 중공군과의 협조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11월 중순 급히 8개 군단 체제로 편성을 완료했으나 아직 정규 군단으로 기능하는 데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다. 12월말 현재 전방의 5개 군단에 소속된 사단들은 모두 15개에 달했지만 사단 당 병력은 1월 16일 현재 평균 3,000~5,000명에 불과했고,⁸³⁾ 중국지원군의 작전에 맞추어 ‘빨치산’ 활동에나 적합한 무장을

80) Zhurnal, 1950년 11월 18일자 참조. 이 무렵 제1-5군단에 관해 ‘빨치산’군단이란 호칭은 소련자료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81) 인원에 관해서는 Zhurnal, 1950년 10월 21일자. 당시 사단들의 혼란상은 전 북한군 출신자들의 회고록에 잘 나타나 있다. 김진계 구술/김용교 정리, 『조국: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상·하)(서울: 현장문학사, 1990); 김석중, 『작품』; 소정자, 『내가 반역자냐?: 전향 여간첩의 수기』(서울: 방아문화사, 1966); 여정, 『붉게 물든 대동강』(서울: 동아일보사, 1991).

82) 이 명단은 필자가 다음의 여러 자료를 대조한 것이며, 다만 최초의 제4군단장이 누구였는가는 확실치 않다. US Far East Command,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김중생, 앞의 책;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所, 앞의 책, 第二卷.

갖추었을 뿐이었다. 장비는 야포가 91문, 비반중포(무반동총)가 69문, 고사포 27문, 81mm박격포 241문, 전차와 자주포가 26문에 불과했다.⁸⁴⁾

중국군의 제1, 제2차작전 시에 북한군은 UN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38선 이남으로의 공세인 제3차작전과 1951년 1월 8일 이후 북한군의 단독작전에서는 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팽덕회는 1월 16일에 북한군 최고사령부를 방문해 김일성, 라주바예프와 갖은 회담에서 북한군 군단들이 사단 수만 많이 확보한 채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북한군의 전방 5개 군단을 각각 현재 4~5개 사단을 갖는 편제로부터 제1군단의 경우와 같이 3개 사단 편성으로 개편하자고 제의했다. 그의 개편 논리는 이렇게 개편할 경우 사단 당 최소한 7,000명의 병력이 확보되어 정규사단으로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팽덕회는 남한군 포로 중에서 2만명을 5개 군단에 분산 할당하여 사단의 인원을 보충하는 방안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김일성은 모두 거부했다.⁸⁵⁾

중국측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스탈린은 이러한 팽덕회의 제안에 일리가 있음을 느끼고 1951년 1월 30일에 라주바예프에게 북한의 군단 편성 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말하면서 북한측을 설득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스탈린은 북한군의 충실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간부들도 부족한 상태에 전방 군단에 19개, 후방군단에 9개나 되는 사단들을 보유하고 있는 방만한 상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사단 당 약 8,000명의 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르기 위해서는 군관이 약 800명이 필요한데 북한군에는 그렇게 많은 훈련된 간부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5개 사단을 해체하여 총 23개 사단으로 축소하고 해체될 5개 사단의 군관들은 다른 약화된 사단들을 강화하는데 활용해

83) Torkunov, *op. cit.*, p. 131.

84) 이 자료는 12월말의 상황이다. Lototskii, *op. cit.*, p. 183.

85) Torkunov, *op. cit.*, pp. 130-132.

야 하고 병사들은 다른 사단의 증원 병력으로 삼는다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그는 군단사령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군에 정규 군단을 지휘할 만한 능력있는 장교가 전무하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의 의견은 군단 대신, 4개 사단을 지휘하는 5개의 군(Army)을 편성하는 것이 옳으며 3개 사단은 총사령부 예비로 두는 것이었다. 그는 “북한인민군 각 사단은 취약하고 불안정하며 전투능력 면에서 매우 열악하다. 북한군 지도부는 사단 수에 정신이 팔려, 부대의 질적 수준은 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부대의 수보다 질적 수준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임을 알아야 된다”고 김일성이 중국측의 합리적인 제의를 거부하는 것을 나무랐다.⁸⁶⁾

이 당시 북한군이 중국측의 사단충실 방안들을 왜 거부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료는 없다. 우리에게는 가설적 설명이 가능할 뿐이다. 첫째, 김일성은 사단 수와 군단 수를 줄일 경우 그렇지 않아도 중국지원군에 작전 면에서 종속된 북한군의 위상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문일 수 있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지원군에 의해 북한군이 지휘를 받는 것에 계속 거부적이거나 못마땅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는 아마도 그러한 개편이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그의 권위를 크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그것은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하는 것이기도 했을 것이다.⁸⁷⁾ 둘째, 김일성은 북한군 내부에서 이미 8개 군단의 군단장 승진을 발표한 후 3개 군단을 축소하여 ‘군(Army)’ 체제로 갈 경우 3개 군단장을 다시 해임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북한군 고위 지휘자들이 임무 수행보다는 높은 자리에만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에서⁸⁸⁾ 그것은 단행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86) *Ibid.*, pp. 136-137.

87) 박길룡은 중국측이 장기적으로 북한을 영향력 안에 두려고 한 것에 대해 김일성과 북한인들이 경계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박길룡·김국후, 앞의 책, 43-44쪽 참조.

88) 『라주바예프 보고서』 2권, 69쪽.

스탈린의 북한군 개편안을 전문으로 하달 받은 라주바예프는 북한군지도부가 8개 군단을 축소하여 5개 군으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보이는 한편 김일성은 '3각 편제'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월 31일 스탈린에게 대한 보고서에서 그 역시 북한군의 불합리한 '거대병'에 대해 비판하며 스탈린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그는 북한군지도부로부터 재편성안에 관해 강한 반대에 직면한 듯 보고서에 "숫자에 정신이 팔려 질적 요소를 경시하고 있다는 [스탈린]동지의 비판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보고하고 "나는 소련군사고문관들과 신뢰를 유지하면서 부대 수 축소작업에 들어갈 생각이다. 즉 '거대병'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이곳 북한에는 사전에 신중한 고려와 계획없이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악습이 있다"고 북한군지도부의 맹목적인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3각편제가 오히려 북한군에 적당하며 일단 현재 5개 사단인 제2군단의 사단 수를 3개로 개편한 뒤 나머지 제27, 제31사단을 해체하여 다른 사단에 분산시킨다는 것과, 제6, 제7, 제8군단이 만주에서 복귀한 후에 북한군의 해안방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점차 3각 편제에 입각해 군단수를 줄여가겠다고 스탈린에게 보고했다.⁸⁹⁾

결국 김일성은 2월 4일 북한군 군단을 축소하라는 스탈린의 전문을 라주바예프가 그에게 보여준 것을 보고서야 소련측의 사단 수 감축안을 수용하였다. 두 사람은 이날 최종적으로 북한군 재편에 관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김일성과 북한군지도부는 사단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군단 감축의 필요를 인식하고 2개의 군단, 4개의 보병사단(제2군단의 제27, 제31사단, 제5군단의 제43사단, 제8군에서 1개 사단)을 우선 감축하기로 하였다. 해군은 해군사령부, 해군학교, 함대사령부 기구를 대폭적으로 삭감하여 해안여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인 사단과 군단의 삭감은 차후작전(제4차작전)이 끝난 후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결국 1951년 2월 제4차작전(1951년 2월 11일~15일)이 끝난 후 북한군은 1개 군단을 해체하고 전방의 제1, 제2, 제3,

89) Torkunov, *op. cit.*, pp. 137-140.

제5군단은 각각 3개 사단으로 개편하였고 후방의 제4, 제6, 제7군단은 대략 2-4개의 사단과 1-2개의 해군 육전여단을 갖는 체제로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다.⁹⁰⁾

제1군단; 제8, 제19, 제47보병사단

제2군단; 제2, 제13, 제27보병사단

제3군단; [제1], 제15, 제45보병사단

제5군단; 제6, 제12, 제32보병사단

제4군단; 제4, 제5, 제9, 제10보병사단, 제105기계화사단, 제26육전여단
(신의주-진남포 간 해안지대)

제6군단; 제18, 제36보병사단, 제17기계화사단, 제23육전여단 (진남포-연
안 간 해안지대)

제7군단; 제3, 제7, 제17, 제37, 제46보병사단, 제24육전여단, 제63여단
(동해안 통천-청진 간 해안지대)

군단 재편성 이외에 한반도의 지형과 전쟁경험에 입각해 기갑부대와 포병부대 구조에서도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전차 및 기계화부대는 모두 대공 고사포부대를 갖도록 개편하였다. 이것은 산악지형에서 보병 요소의 필요성과 개전초 미공군 폭격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제105전차사단은 제105기계화사단으로 개편되었고, 제17기계화여단은 제17기계화사단으로 개편되었다. 미군으로부터 노획한 탱크를 수리하여 제103독립땅크대대(원산), 제104독립땅크대대(함흥), 1개의 독립땅크중대(진남포)가 편성 배치되었다.⁹¹⁾ 북한군은 1951년부터 전선 군단들이 주로 동부의 험한 산악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했고 또 끊임없이 UN군의 후

90) 『라주바에프 보고서』 2권, 73-74쪽. 이 책에는 제3군단의 소속 사단으로 제3사단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류이므로 필자가 제1사단으로 바꾸었음.

91) 위의 책, 129-131쪽.

방상륙에 대해 우려했기 때문에 전차부대의 대부분은 동서 해안의 주요 항구 주변에 배치되었다. 1951년 전반기까지 북한군은 77대의 전차와 63문의 자주포(SU-76)를 보유하였으며, 이 전력의 1/3은 해안지대에서 5-6킬로미터 지점에 매복해 배치했고 나머지 2/3는 주로 제105기계화사단에 소속시켜 평양과 신의주-진남포 간 해안방어를 담당했던 제4군단의 기동예비대로 삼았다.⁹²⁾ 포병부대의 재편성 과정에서는 한국지형에 맞지 않는 평사포를 대폭 감축하고 대신 곡사포, 특히 박격포의 사용을 중시했다.⁹³⁾ 북한은 82mm박격포, 120mm박격포와 포탄을 자체 생산하고자 노력했지만 생산에 성공한 수량은 1951년 4월 1일 현재 82mm박격포 15문, 120mm박격포 10문에 불과했다. 대량의 곡사포, 박격포, 포병탄약은 소련으로부터 수입해야 했다. 이와 함께 고사포병의 증강이 이루어졌다. 1951년 봄에 3개의 군단 고사포병연대가 창설되었다.⁹⁴⁾

시간이 지나면서 소련물자에 의해 조금씩 북한군의 무장은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한꺼번에 많은 무기가 공급된 것은 1951년 6월에 들어서였다. 1951년 초에 스탈린은 동유럽의 위성국가들에 무기를 공급해야 했고 또 중국군에 막대한 량의 무기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군에게 지급할 무기는 부족했다. 스탈린은 1951년 5월 30일에 라주바예프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6월에 칼빈 2만 5천정, 기관총 5천정, 이동기관총 1,200정, 고정기관총 550정, 기관총 275정, 대전차기관총 500정, 82mm박격포 700문, 120mm박격포 125문을 보내겠다고 전문을 보냈다.⁹⁵⁾ <표 1>에서 보듯이 1951년 전반기 소련으로부터 대량의 무기와 장비의 유입으로 북한군은 휴전회담 개시 전까지 병력은 약 40만명으로, 포병과 기갑 무장에서는 거의 전쟁 전 수준에 육박하였다.

92) Lototskii, *op. cit.*, p. 329.

93) 김일성, 『우리의 전법으로 싸워야 한다』, 『김일성전집』 제13권, 96쪽.

94) 『라주바예프 보고서』 2권, 88, 94쪽. 김일성의 박격포 생산 독촉에 관해서는,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자』, 『김일성전집』 제13권, 142쪽.

95) 외무부 역, 『소련극비외교문서』 제4권, 113-114쪽.

<표 1> 북한군의 시기별 병력 규모와 무장, 1950. 6. 25-1951. 7. 10

시기		1950. 6. 25	1950. 10월말	1950. 12. 30	1951. 7. 10
구분	병력	188,000	32,840	106,327	393,014
	사단수	10+1개 전차여단	4	15	23(4개여단 포함)
포병 화력	야포 (76mm이상)	552	35	91	731
	박격포	1,668	60	241	1,248
	비반총포	550	20	69	537
	계	2,760	115	301	2,516
	고사포	?	5	27	278
	전차 및 자주포	418	41	26	243
	항공기	210	-	-	136

* 출처 : S. S. Lototskii ed., *Voina v Koree 1950-1953* (Sankt-Peterburg: Poligon, 2000), pp. 59, 155, 183, 251.

6. 북한군 재교육과 소련고문단의 역할

소련고문단장은 북한군의 재편성과정에서 장비의 증강에 못지않게 교육·훈련에 대해 매우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였고, 이 면에서 소련군사고문들의 역할은 대단히 컸다. 북한군은 1950년 말까지 전전에 훈련된 많은 경험 있는 장교들을 잃었고 부대의 긴급한 재편 과정에서 무질서와 비조직적 미숙성을 드러냈다. 북한군은 중국지원군을 지원하는 ‘빨치산’ 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지휘관들은 정규적인 편성을 무시하고 인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참모업무는 전반적으로 기초훈련을 바로

끝낸 군관들이 배치되어 경험이 없었고 무질서하게 처리되었다. 라주바예프는 1950년 11월 28일부터 새로 마련된 북한군 교육훈련 계획에 의해 소련 고문관들을 통해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북한군 지휘관들과 참모들의 훈련에 고삐를 바짝 죄었다. 그는 전투가 상황이 어렵게 진행되는 중에도 신임장교의 경우 5개월의 훈련이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전방 배치를 금했다. 각급의 지휘관과 참모들에게는 전투의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교대로 군관학교에서 강습반 교육을 받도록 통제하였다. 지휘관들은 3개월 코스, 참모들에게는 1개월 코스를 마치게 하였다. 그는 또한 병종별, 부대별로 편제 및 정원표를 작성하고 엄격히 이에 따를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지휘관들이 마음대로 부대를 증설하거나 창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이에 관해서는 북한군 총참모장 남일이 엄격히 통제하도록 했다.⁹⁶⁾

소련군사고문들은 북한군 총참모부, 군사교육기관 그리고 후방군단의 사단급에까지 배치되었다. 전쟁개시를 전후하여 북한에 배치되는 소련군사고문의 숫자는 편제정원이 246명으로 유지되었다. 1950년 11월 17일 현재 북한의 육군에는 총 123명의 소련군사고문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중 11명은 총참모부와 후방총국에, 55명은 북한 지역의 야전부대에, 51명은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와 군사학교에 배치되었다.⁹⁷⁾ 이들 외에도 각종 신형무기체계 교육이나 군수공장 운영에 필요한 소련인 ‘군사전문가’, 즉 기술요원 수백 명이 북한에 있었다. 이들은 이중국적의 상태로 북한군 장성 및 고위 군관직에 보임된 약 150명 정도의 ‘소련계 북한군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활동했다. 1951년 1월 1일 현재 소련계 북한장교는 154명이었고 북한에서 활동했던 소련인 ‘전문가’들은 355명에 달했다.⁹⁸⁾ 그러나 소련고문들

96) 『라주바예프 보고서』 2권, 58-59쪽.

97) V. A. Zolotarev, et. als. eds., *Rossiiia (SSSR) v lokal'nykh voynakh i voennykh konfliktakh vtoroi poloviny XX veka*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국지전쟁과 군사분쟁에서 러시아(소련))(Moskva: Kuchkovo pole, 2000), pp. 70-71. 전쟁 중 소련군사고문단의 변동에 관해서는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270-383쪽을 참조하라.

은 전방 군단인 제2, 제3, 제5군단에는 배치되지 않았다.⁹⁹⁾ 그것은 소련고문관들이 포로가 되는 것을 우려한 스탈린의 엄명에 따른 것이었다. 소련고문단은 이 때문에 “중국인민지원군 예하 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에서 보여지는 유격대식 전투수행 방법은 군기의 강화를 저해하고 있다”¹⁰⁰⁾고 중국식 작전방법 및 지휘방식이 북한군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소련군사고문단은 각 병과 군사학교 교육을 엄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입각해 시행하는 것을 제도화시켰고 이들에게 ‘전쟁경험’을 연구하게 하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고급간부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대장반, 사단참모군관반, 연대참모군관반을 운영하여 참모업무수행 능력과 이론적 군사교육을 강화하였다.¹⁰¹⁾

북한군의 교육·훈련 수준은 소련군사고문단의 체계적인 교육의 노력에 의해 1951년 5월에는 정규작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소련군사고문단은 북한군의 이 당시 북한군의 전투수행능력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다. 소련군사고문단은 1951년 5월 11일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훈련과 무장 및 군기상태의 수준으로 보건대, 조선인민군은 완전한 전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전투형태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투경험을 고려하여 편성된 군의 조직구조는 현 단계에서 군에 제기되는 모든 요구에 부응한다”고 말하며 북한군이 전투경험과 기본적인 전기전술에서 전투를 무난히 수행할만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교적 높게 평가했다.¹⁰²⁾

98) Viktor Alekseevich Bukhtoriarov, “Uchastie kontingenta sovetskikh voisk v Koreiskoi voine: Istoriko-politicheskii analiz (iun’ 1950–iul’ 1953 gg.),” Dissertatsiia na soiskanie uchenoi stepeni kandidata istoricheskikh nauk, Gumanitarnaia Ordendov Lenina I Okiabr’skoi Revoliutsii Krasnoznameniia Vooruzhennykh Sil Rossiiskoi Federatsii (Moskva, 1994 g), p. 42.

99) 안승환, 앞의 논문, 458쪽.

100) 『리주마예프 보고서』 2권, 77쪽.

101) 위의 책, 65–66쪽.

102) 위의 책, 206–207쪽.

그러나 1951년 내내 북한군의 문제점은 항일유격대의 배경을 바탕으로 고급지휘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장령, 고급군관들의 낮은 질적 수준에 있었다. 소련고문관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북한군 장교단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 부하에 대한 엄격성 부족, (2) 특히 사단장과 군단장들의 군사교육 부족, (3) 군관성원(고급과 상급)의 병사, 하사관 및 하급군관들과의 교류 부족, (4) 모든 병과의 고급지휘 성원 및 정치성원들이 지식향상과 전투경험 연구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점, (5) 전투행동 과정에서 고급 및 상급지휘관들이 자주 전투수행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유격대식 지도 및 활동방식을 사용하는 경향.¹⁰³⁾ 또한 소련고문단은 근본적으로 ‘빨치산 출신’인 고급지휘관 참모들이 충성심은 있지만 상당수가 낮은 학력을 갖고 있으며 전문군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급군사문제를 이해할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 특성은 진급에만 관심을 보이고 직무에 책임감이 부족하며 부하들에 대한 복지에 관심이 적고 군사지식의 보완 및 전쟁경험 연구에 무관심함을 보이는 것이었다.¹⁰⁴⁾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 데에는 고급지휘관 임명에 있어 김일성이 빨치산 출신자들과 그에게 아부하는 자들을 비호한 데도 원인의 일단이 있었다. 당시 군사고문관으로 있다가 후에 소련 장군이 된 마추렌코 중장은 이렇게 회고했다.

수개월에 걸친 북한군 장군들과 장교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군사지식과 작업방식, 그리고 사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모두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의 심복인 최현 장군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그는 아마도 김일성의 자리를 꿈꾸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1950-53년 당시 지도자 물망에 올랐던 지휘관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잘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군사적인 재능은 결코

103) 위의 책, 209-210쪽.

104) 위의 책, 68-69, 71쪽.

없었다. 그렇다고 북한 주재기간 동안 내가 독자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장군이나 장교들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장군들과 장교들의 경력은 그들 자신들의 능력에 달려 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김일성에게 아부를 잘 하느냐, 그리고 우리 소련 군사고문들에게 얼마나 알랑거리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¹⁰⁵⁾

또 다른 군사고문이었던 오를로프 소련군 대좌는 조선 군인들이 소련고문들의 합리적 조언을 듣는 것보다는 누군가[아마도 김일성 - 필자]의 지시를 받아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곤 했다는 것을 회고하였다.

조선의 피후견인들은 우리를 믿지 않았다. - 그들은 친근한 웃음을 띠면서 우리의 충고를 듣고는 또 다른 누구와 '상의하러' 어디론가 나갔다가 다시 웃음을 지으며 돌아와서는 "이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정이 있으니까요"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또한 북조선의 지도부가 우리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영성하게 일을 처리하여 많은 인명손실을 가져온 적도 드물지 않았다.¹⁰⁶⁾

7. 맺음 말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인천상륙작전 이후부터 휴전회담 이전까지 북한군의 지휘 및 구조상의 변모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의 부재를 고려하여 필자는 특정 문제에 대한 해석보다는 사실을 복원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논문의 서두에서 제시한 주요 문제별로 논의한 바를 요약한 후, 이를 좀 더 거시적 시각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105) 가브리엘 코로트코프, 앞의 책, 229쪽.

106) 위의 책, 234쪽.

첫째, 인천상륙작전 후의 북한군의 붕괴과정은 상당부분 김일성의 전쟁 지휘 잘못으로부터 연유하였다. 낙동강선 전투 마지막 단계에서 김일성은 있을 수 있는 미군의 상륙작전을 우려하는 중공측이나 소련군사고문관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모든 전력을 부산함락이라는 목표에 투입하는 우를 범하였다. 이로 인해 후방에는 훈련되고 잘 무장된 예비대가 거의 없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 이후에도 김일성은 주력부대의 철수를 권고한 스탈린의 지령을 무시하여 낙동강선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부대들이 완전히 포위망 안에 갇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는 미군의 반격에 대응하기 위해 1950년 10월말~11월초에 급히 예비사단들을 편성하는 조치를 취하는 했다. 그러나 후방에 있는 예비부대들을 사단으로 이름만 격상된 것일 뿐 정규부대에 상응하는 전투력을 가진 존재가 되지 못했다. 인천상륙이후 북한군의 붕괴가 그만큼 심각하게 이루어진 것은 맥아더 장군의 작전시행이 훌륭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1950년 8~9월에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미숙하고 무모한 작전지휘 때문이었다.

둘째, 북한군의 작전지휘권 행사는 제2차공세 당시까지는 명목상 김일성의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팽덕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중공의 연합작전의 주된 작전 개념은 팽덕회의 구상에서 나왔으며, 북한군의 작전도 김일성과의 일정한 협의가 있기는 했지만 그의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11월 15~17일의 제2군단, 제5군단의 창설도 사실상 팽덕회의 제2차작전 구상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11월 17일 김일성이 최현을 불러 주력부대의 작전에 맞추어 제2군단이 시행할 구체적인 목표들을 지정해주며 ‘적후투쟁’을 전개하라고 명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명령은 기본적으로 11월 13일의 팽덕회의 작전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0년 11월 15일 팽덕회, 김일성, 슈티코프 간의 회합에서 ‘배합작전’을 시행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2차공세 시부터 북한군 전방 군단들에 대한 실질적 작전통제는 팽덕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12월 8일 중·조연합사 구성 이후에는 북한군 5개 군단은 명실상부하게 팽덕회의 지휘하에서 들어갔다.

김일성은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이 팽덕회에 의해 좌우되는 것에 불만이었고, 특히 제3차 공세 당시 37도선 점령 이후 1951년 1월 8일 팽덕회가 ‘진격정지 및 2개월 휴정’ 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해 반발하며 스탈린의 동의를 얻어 북한군 제2군단에게 멀리 영월, 영주, 안동까지 단독 추격작전을 명했다. 그러나 무장면에서 빨치산 작전이나 적합했던 제2군단의 1951년 1월 작전은 큰 손실만을 내고 실패하였다. 이후로 김일성은 전방 군단의 지휘권은 팽덕회에게 넘긴 채 동서해안의 경계를 담당한 후방 군단들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셋째, 1950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북한군의 재편성·재교육·재무장에 있어서는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를 포함한 소련군사고문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북한군에 대한 소련고문단의 엄격한 통제력 행사와 스탈린의 북한 지원 의사에 힘입어 북한군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까지의 ‘빨치산 군단’으로부터, 1951년 7월초까지는 교육, 훈련, 편성, 무장 등의 면에서 소련군의 기준에 비추어 정규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7개의 정규군단과 23개의 사단을 갖춘 체제로 재편되었다. 병력 규모는 개전 전의 2배 이상인 40만 명으로 늘어났고, 화력은 전쟁전 수준에 좀 못미친 상태로 회복했다.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대공능력 증가, 곡사포와 박격포 증강, 전차부대의 기계화부대로의 재편, 후방 병참조직의 강화 등 전쟁 초의 북한군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의 재편성 과정은 급변하는 전황 속에서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복합적 요인들이 교차되었다. 북한군 재편 과정에서 우리는 크게 보아 네 가지 영향력이 작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중국요소’, ‘소련요소’, ‘북한요소’, ‘전장상황’이다.

‘중국요소’는 북한군의 재편성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의 존립을 가능케 한 근본적 요소였다. 그러나 실제 제도나 교리 면에서 북한군 재편성 과정에서 중국적 요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당시의

모택동조차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스탈린의 권위가 중국군과 북한군 양측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창설을 주도했던 소련 고문단은 중국군 개입 이후 일시적으로 북한에서 중국세력의 부상을 우려했으나 중국에는 북한군에 대한 무기공급자로서 그리고 교육훈련의 전담자로서 북한군을 그들의 모델에 따라 재편성할 수 있었다. 스탈린은 북한측과 중국측의 의견이 상충될 때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 인정이라는 틀 속에서 중·조연합사 문제와 팽덕회의 '1951년 1월 8일의 추격 중지, 2개월 휴정 명령' 문제 등에서 그의 부하들의 목소리를 누르고 모택동과 팽덕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결코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김일성이 '우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패전책임도 묻지 않고 소련대사와 고문단장을 통해 그를 지원했다. 무엇보다도 김일성은 그의 권력이 있게 만든 스탈린과 소련에 대해 절대 복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소련고문단은 북한군이 미국세력의 한반도 독점적 지배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게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편성, 무장, 교리, 훈련 등에서 인천상륙작전 이후 붕괴된 북한군을 약 6개월의 짧은 시간 안에 전쟁 전 수준에 버금가는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북한군 재편성 과정에는 '북한 요소'가 어느 정도 표출되었다. 스탈린의 확고한 김일성 지지는 그로 하여금 지휘권 문제나 군 편성에 있어 중국에 대해 일정한 정도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북한군의 질적 성장에 있어서는 해가 되는 것이 명백했지만 그는 재편성 과정 중에서도 군 내부에서 그의 권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능력이 없더라도 그에게 신뢰를 보이거나 충성심이 있는 측근을 중용하였다. '전장 상황' 때문에 휴전회담 이전까지 김일성은 모택동, 팽덕회와 가까운 연안파가 군에서 득세하는 것을 보아 넘겨야만 했다. 그러나 전장의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면 언제나 군내에서 그의 권력을 보장할 조치를 취할 마음을 품고 있었다. 휴전회담 이후 1952년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팽덕회가 1952년 4월 본국으로 돌아 간 후 그는 군내 연안파의 대표

격인 김웅을 군의 중요 직책에서 거세했다.¹⁰⁷⁾ 1953년 봄에는 중조연합사 부정치위원 직에서 연안파의 중요인물 박일우를 해임하는 한편 제5군단장 방호산을 고급군사대학 학장의 한직으로 발령했다. 김웅의 후임에는 김광협, 박일우의 후임에는 최용건, 방호산의 후임에는 최용진을 임명했는데 모두 그의 만주 빨치산과 동료 혹은 부하들이었다. 김일성은, '독창적인 전법을 창조'한 천재적인 군사적 영도자라는 북한측의 설명과는 달리, 전략적 식견이 부족하고 무모한 군사지도자였다. 그는 오히려 정치적 술수에 능숙했다. 한국전쟁 중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김일성은 전략적 무능 때문에 많은 실패와 인명 손실을 자초했다. 전후에 북한은 '천재적인' 김일성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에 흠을 내지 않기 위해 마치 전쟁 중의 주요 결정이 김일성 자신의 독자적 아이디어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왔다. 사실은 스탈린의 비호, 중국지원군의 대규모 참전, 그리고 소련군 사교문단의 활동이 김일성과 북한인민군을 패배로부터 구해주었다.

(원고투고일 : 2006. 4. 18, 심사완료일 : 2006. 6. 5)

주제어 : 조선인민군, 인천상륙작전, 김일성, 팽덕희, 중조연합사령부

K C I

107)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 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2년 7월 7일), 『김일성전집』 제15권, 123-124쪽.

<ABSTRACT>

The Demise and Reorganization of the North Korean Army after the Inchon Landing of September 1950

Kim, Kwang-soo

In this article I intend to illuminate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North Korean Army and the resulting changes in the military structure after the Inchon Landing of September 1950 -an endeavor indispensable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War. There have been few systematic studies made about the North Korean Army during the Korean War.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no systematic study about how the North Korean military units having completely disorganized after the Inchon Landing was restructured into a regular army, thus putting an end to their previously chaotic state. Official literature written by North Koreans tend to hide or distort facts in order to praise Kim Il-Sung's achievements, but until the beginning of the 1990s there was hardly any other data that could help examine such descriptions. Thanks to the recent releases in Russia and China of historical documents concerning the Korean War, I have been able to analyze the reorganization of the North Korean army and the changes in the military structure that occurred after the Inchon Landing. In this article I will focus on the reasons for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Army, the formation of a joint command headquarters with the Chinese after the entry of the Chinese Volunteers Army in the Korean War, the command structure of the North Korean army, and the reorganization and rearmament of the North Korean army. This study focuses on the time period between the

Inchon Landing and the beginning of armistice negotiations.

The reasons for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army after General MacArthur's landing at Inchon can be discerned by investigating how North Korea's top military leadership responded to this incident. First, Kim Il-Sung summoned the troops deployed near Seoul and formed a headquarter to thwart the advance of the UN troops from Inchon. On September 17, 1950, Kim Il-Sung appointed Choi Yong-Gun to the post of the commander of the military forces to defend the western shore. Choi summoned to Seoul the 31st and 38th independent regiments, the 25th and 27th training brigade, and the 41st, 42nd, 43rd, and 45th armored regiments to reinforce the defense of the western part of Seoul. He tried to defend Seoul from the attacking first U.S. Marine Division with these military forces, which were lightly armed, poorly trained and with low morale, but had to give up Seoul on September 27. It was because Kim Il-Sung poured all the best troops to the Naktong frontline for the September Offensive to occupy Pusan.

Secondly, because of his complacent judgement and late response, Kim Il-Sung failed to order the timely withdrawal of troops deployed at the Nakdong River frontline. To resolve the crisis created by the Inchon Landing, Stalin instructed Kim Il-Sung on September 18 to reinforce the defense of Seoul by bringing in four divisions from the Nakdong River frontline. In carrying out this instruction, however, Kim Il-Sung reduced the scale of withdrawal from the command of the frontline headquarters and the latter did not carry out the instructions in a timely manner. To bring four regular infantry divisions back from the Nakdong River frontline to Seoul, he would have had to order all the remaining troops to retreat to a defensible line far backward to cover the retreating units, but he did not do so probably in order to maintain the Naktong frontline for a next offensive. A week after Stalin issued his instructions the troops were ordered to retreat, but it was too late. From September 21 onward, the troops deployed at the Nakdong River frontline were collapsing from below.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the North Korean army after the Inchon Landing, four factors—

'the China factor,' 'the Soviet factor,' 'the North Korea factor,' and 'the battle situation'—came into play. 'The China factor' had a fundamental effect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North Korean army and in ensuring the survival of the North Korean regime. But in terms of the actu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he doctrine to restructure the North Korean army, the China factor had a limited effect. That was because Stalin's authority, which even Mao Zedong had to accept, was exerted on both the Chinese and North Korean militaries. The Soviet Advisory Corps that led the foundation of the North after China's entry in the alert against the Chinese influence that temporarily rose in North Korea army were on the alert against the Chinese influence that temporarily rose in North Korea after China's entry in the Korean War, but as the supplier of arms to North Korea and the main force of training, they could reshape the North Korean army following their own model. When there were disputes between the North Koreans and the Chinese over the issues concerning the Chinese-North Korean Joint Command Headquarters and Peng Dehuai's order of 'stopping the pursuit on January 8, 1951 and taking two-months of rest,' Stalin honored the principle of recognizing the role of China in East Asia and took the side of Mao Zedong and Peng Dehuai against the opposition of his own subordinates. However, he never allowed North Korea to be subject to China's rule. Since he considered Kim Il-Sung to be 'our person,' Stalin did not hold him accountable for the defeat in the Korean war and supported him through the Soviet ambassador to North-cum-head of the advisory corps. Above all, Kim Il-Sung unconditionally obeyed Stalin and the Soviet Union, and this obedience made his power possible. The Soviet Advisory Corps were focused on empowering the North Korean army to make it capable of thwarting the American forces from unilaterally ruling the Korean Peninsula. After

November 1950, the Soviets could retrain and rearm the North Korean forces back to their pre-war level within six months, thanks to their expansive institutions, arms, doctrine, and training.

In this larger framework, the 'North Korea factor' was somewhat present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North Korean army. Stalin's steadfast support provided Kim Il-Sung with a basis on which he could voice relatively independent opinions in the matters of commandship and army organization. While his favoritism clearly harmed the growth of the North Korean army, Kim Il-Sung preferred those who were faithful and loyal to him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even if they were incompetent, so that he could better consolidate his power in the military. Also, because of the 'battle situation,' Kim Il-Sung had to condone the rising power in the military of the Yeonan group until crisis of battle situation ended. After the war lulled follow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and after Peng Dehuai returned to China in April 1952, he removed Kim Ung, Park Il-Woo and Bang Ho-San, leaders of the Yeonan group, from important posts within the military.

Key Words : North Korean People's Army, Inchon Landing, Il-Sung Kim, Peng Dehuai, Chinese-North Korean Joint Command Headquarters